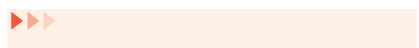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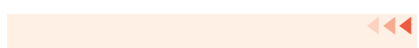
장정일의 독서일기

# 자아를 잃은 현대인의 비극

1995년 3월 20일, 교주 아사하라 쇼코의 지령을 받은 일단의 옴진리교 신도들이 도쿄 지하철에 동시다발적으로 사린 가스를 투척했다. 이 사건은 3800여명의 공식적인



제도에 세뇌 당하고 현실에 포박된 현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만의 고유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옴진리교 사건'은 자아를 양도해버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피해자와 11명의 사망자를 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 후부터, 사망자 유족을 포함한 사건의 피해자 60여명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게 '언더그라운드(열림원, 1998)'다.

대담을 마친 하루키는 이 책의 말미에 옴진리교 사건에 대한 나름의 보고서를 쓰는데, 여기서 그는 두 가지를 말한다. 먼저, 개인의 자율성은 본래 사회라는 타율성과 교섭하면서 형성된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회와의 교섭이나 사회의 반영 없이 자율적인 자아를 만들어 버린다. 그럴 때, 사회적 논리와 개인 사이에 갇은 알력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그런 인물이다.

앞서의 사항은, 흔히 우리가 '재는 사회 화가 덜 됐다'라고 지적하곤 하는 것을 되

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난 것은 하루키가 강조하는 두 번째 사항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이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야기란 '나는 어떨어떨하게 살고 싶어'라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두 개의 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현실적인 나'와 '꿈을 꾸는 나', 이걸 풀어보면 이렇다. '비록 지금은 호텔의 화장실 청소부지만(현실적인 나), 언젠가는 이 호텔의 사장과 결혼하고야 말겠어(꿈을 꾸는 나)'. 바로 이게 이야기다. 누구는 좀 더 명료히 의식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뿐, 누구나 나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에 세뇌 당하고 현실에 포박된 현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만의 고유한 자

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 하루키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엔진(자아)없이 차(이야기)를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고유한 자아가 없는 때문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자아를 양도하게 되며, 자신의 자아를 양도한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자동 기술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옴진리교의 신도들은 고유한 자아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흠집 많은 자아의 소유자인 아사하라 쇼코에게 자신을 송두리째 위탁해버렸다. 하자 많은 거푸집 속에 구겨 넣어진 양도된 자아(신도)들이 만들어낸 비극이, 바로 '언더그라운드'다.

<소설가>



“여의도 입각없어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

# 1·19개각 ‘찬밥’된 여당

입각배제에 인선결과도 전달 못받아...당 내부선 지도부 비판론

1·19 개각 소식을 접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허탈’ 그 자체였다. 내심 강하게 추진한 소속 의원들의 입각도 실패한데다 개각 인선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 청와대의 ‘찬밥대우’에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이다.

박희태 대표가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뒤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과 관련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당지도부 홀대는 그 전에도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6월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에 참석한 당 지도부들에 좌석조차 배정하지 않아 홍준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

이 우왕좌왕했다.

계속되는 홀대론을 의식한듯 당 사자인 박희태 대표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깊은 무력감을 표시했다.

“이번 개각에 당 차원에서 특정 의원을 추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몹시(여유가) 있어야 그렇게라도 하지. 이번에는 경제내각 제2기 출범이어서 들어갈 틈이 없었다”며 푸념조로 대답했다. 앞으로 있을 개각 폭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 입각만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특히 장관도 아닌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지도부를 옹호하기보다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지도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 입법전쟁에서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도움이 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이번 청와대의 홀대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무시를 당한 게 한두 번이었느냐?”며 당 지도부의 지도력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간 심각한 소통부재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예고된 입법전쟁에서 한나라당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www.ImageBit.co.kr  
 잘나가는 디자이너는 알고 있다!  
**이/미/지/비/트**

**“한 학기 98만원 중국사이버 유학!!”**  
 한국과 중국 원하는 곳에서 중국학사학위 취득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고 교육분야에서 양국의 대학 학점 교차 인정제도 도입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중국 사이버대학교가 한국에 개설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북경연합대학 사이버대학교(한국e-캠퍼스)는 2002년 중국 교육부의 비준서가 간간이 되며 북경 시 교육위원회의 감독 아래 북경연합대학교 응용문리학원의 교육커리큘럼과 학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북경연합대학교는 북경 시 중점 육성대학으로서 국내에 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하면서 타 중국대학교와 차별화된 학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2학년은 어학공통과정으로 중국어만 학습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3-4학년은 각 학과 별로 전공과정을 이수한다. 따라서 어학 연수기간을 거치지 않고 본과 1학년에 입학할 수 있어 최단기간 졸업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방식으로(사이버대학: 온라인 과정 & 북경본교: 유학과정) 재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기 별로 교차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대학교의 단점을 보완했다.

21세기 한중 교류가 성숙해지고 있는 지금 북경연합대학교는 어학 실력과 전공소양을 갖춘 중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배움터로 급부상하고 있다.

원서접수: www.chinauniv.or.kr  
 입학상담: 02) 333-8666

# 윤증현-진동수 ‘투톱’...경제팀, 일 좀 하려나

전문가들, 긴밀한 공조체제 주문...일부 재벌편향정책 우려도

1·19 개각을 통해 새로 진용을 갖춘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은 윤증현-진동수 투톱 체제로 운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 모두 참여정부 출신 각료로 ‘코드’보다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졌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두사람은 친(親)시장주의자로 지금과 같은 경제비상사국에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경기부양과 기업·금융 구조조정 마무리, 고용안정 등 경제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메스’를 대야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세제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녹색뉴딜 등 각종 부양책

을 내놓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까지 나온 경제대책들 중 일부는 과거 서랍에서 꺼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천력을 결합해 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위기의 심화를 제어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팀 간에 신호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양부처간의 화학적 결합을 주문했다.

한편에서는 이들의 친(親)시장적 성향으로 인해 재벌편향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윤증현 장관 내정자는 금산분리를 강력 주장해 왔다”며 “재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관치를 밀어붙일 경우 경제위기가 더욱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미기자 jym@cbs.co.kr

**노컷뉴스**  
 www.dailynocutnews.co.kr

회	장	홍	원	기
발행·편집	인쇄인	김	인	평
편	집	장	정	상
광고	마케팅	국장	박	운
실				실

기 사 제 보 02)2650-1136  
 광 고 문 의 02)2650-1111  
 사 업 문 의 02)2650-1110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 방송 18층  
 대표전화: 02) 2650-1100 FAX: 02) 2650-1119  
 등록번호 서울가 00061